

# 포스코, 에너지 강재 세계시장 10% 선점 나선다

〈2020년까지 60여종 개발〉

### 권오준 회장 취임 한달... 경영 쇄신 박차 6개 조직 → 4개 본부로 축소해 효율화 리튬 회수율 80% 달성... 세계시장 주도

포스코가 권오준 회장 체제로 출범하며 조직과 제도, 프로세스, 기업 문화 등 경영 인프라를 확실히 쇄신해 나가며 에너지 강재와 신소재 개발분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권 회장은 기존 6개 조직부문을 4개 본부로 축소해 효율화하고 조직계층도 간소화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였다. 또, 지원부문 인원을 40%로 줄이고 이 부문 직원을 마케팅 부서와 제조, 해외사업부서 등으로 전환 배치하며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올해 포스코는 철강 본원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자동차 강판과 에너지용 강재, 선재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를 늘림으로써 중국 철강 기업들의 초과 공급과 엔저를 내세운 일본 업체들의 저가 공세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전략을 세워두고 있다.

포스코는 제품의 40%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나 주력 제품은 현재는 자동차, 조선용 철판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 강판은 '트립(TWIP)강'으로 철에 망간과 알루미늄 등을 섞어 만들었으며 일반 자동차강판보다 무게는 30% 가볍지만 강도는 오히려 3~4배 강하다. 이처럼 가공이 쉽고 가벼워 차량 경량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연료전지를 활용한 미래 운송기반인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생산하려는 글로벌 자동차회사들의 러브콜이 줄을 잇고 있다.

최근 고급강 시장 개발 및 확대에 집중하고 있는 철강업계는 에너지 강재, 그리고 석유나 가스 등 에너지원의 개발·생산·수송·저장시설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포스코 역시 지난 2000년부터 에너지 강재 연구 개발(R&D)에 나서 지금까지 총 23종의 강종을 개발해 놓은 상태다. 또 석유화학 메이저 기업인 쉘의 'FL-NG 프로젝트'에 15만톤의 후판을 공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광양제철을 방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급하는 등 제품의 성능을 인정받아 향후 60여종의 에너지 강재 개발을 추가해 오는 2020년까지는 시장점유율을 10%까지 늘릴 방침이다.

포스코는 지난 2012년 망간 함량을 10% 수준까지 낮춘 '망간저함량(Lean Mn)' 강판을 개발해 비용을 줄였고, 트립강을 적용한 전기차 차체를 독자적으로 설계해 26%의 경량화 효과를 확인했다. 포스코는 트립강 원천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다, 오는 2020년 탄소배출량 감축목표에 따라 각국 정부가 완성차

업체에 90% 이상의 연비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트립강 공급 확대 및 이에 따른 수익확보에 과감함이 커졌다. 포스코는 지난해 2월에는 대우조선해양 원유시추 생산장장시설(FP-SO)에 필요한 후판 전량 9만톤을 공급했으며, 쉘사의 FLNG 프로젝트에 필요한 후판도 전량 공급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강재 시장에서 포스코를 위협할 철강사가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신일본체철이나 독일의 달링거 제철소 등 소수의 철강사가 에너지 강재를 생산하고는 있

지만 품질은 포스코에 뒤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리튬소재부문을 강화한 결과 리튬 추출 분야의 경우 30여 건의 주요 기술을 국내외에 특허 출원할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2년에는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키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바닷물에 화학반응을 일으켜 리튬을 직접 뽑아내는 방식을 세계 최초로 개발, 추출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였으며 최대 50%밖에 안 되던 리튬 회수율을 최소 80% 이상으로 끌어올려 경제성을 높였다. 리튬 시장은 올해 15만에서 오는 2020년에는 35만(탄산리튬 기준)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포스코의 리튬추출기술이 상용화에 근접한 만큼 앞으로 리튬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오준 회장은 "글로벌 경기부진에 따른 조선, 철강업계의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이 'POSCO The Great, 위대한 포스코'를 만드는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쏘울EV' 1호차 전달식 14일 서울 세라톤 위커퉴일 호텔에서 열린 '쏘울EV' 출시 기념식 및 1호차 전달식에서 이삼용 기자(왼쪽)와 구자영 SK이노베이션 부회장이 차를 전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자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쏘울EV는 국내 최대 주행 거리 확보 및 올해 레드닷 수상 등 성능과 디자인 모두 국내 최고의 전기차로 인정받고 있다. (기자차 제공)

## 광주·전남 상장사 채무변제능력 약화 12개사 유동비율 75%로 31% 감소

### 한국거래소 조사

광주·전남지역 상장사들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제조·비제조업인 12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말 현재 유동비율을 조사한 결과 75.7%로 전년말보다 31.46%포인트 감소했다.

유동비율은 유동 부채에 대한 유동자산(1년 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의 비율로, 단기채무능력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실제 이 기간 동안 유동자산은 3조 2227억원으로 전년보다 8.35% 감소했고, 유동부채는 4조 2570억원으로 1년새 29.74%나 급증했다. 국내 유가증권 전체 568개사의 유동자산과 부채 증가율이 각각 4.82%, 0.38%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큰 격차가 가

날 수 없다.

12개 상장사 가운데 유동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국철강으로 나타났다. 부국철강의 유동자산은 1121억9900만원, 유동부채는 301억3400만원으로 유동비율이 372.33%로 가장 높았다.

2위는 화천기공 247.93%(유동자산 1300억원, 유동부채 524억3800만원), 3위는 동아에스텍 185.97%(유동자산 682억2000만원, 유동부채 366억7400만원), 4위는 조선내화 170.75%(유동자산 1992억9900만원, 유동부채 1167억1800만원), 5위는 금호산업 72.89%(유동자산 9761억 3000만원, 유동부채 1조3391억8600만원) 등이었다.

유동비율 증가 상위 3개사는 광주 신세계(86.53%포인트), 화천기공(80.64%포인트), DSR제강(43.01%포인트) 순이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AI 여파 산란계·육계 증가, 오리·한우 감소

### 광주·전남 사육 가축 동향

2014년 1·4분기 광주·전남의 사육 가축 동향이 AI(조류인플루엔자)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이 14일 발표한 '전분기 대비 1·4분기 광주전남의 사육가축 마리수' 자료에 따르면 산란계와 육계는 증가한 반면 오리, 한우, 육우, 젓소, 돼지 등은 감소했다.

산란계의 경우 371만1000마리로 전년 동기보다 1.8%(6만4000마리)가 늘었다. AI 발생으로 인한 계란 폐기물량 증가, 산지가격 호조 및 계란 수

요 증가를 예상한 입식 등이 주된 이유다. 육계도 10.2%(113만3000마리)가 늘어 1226만6000마리로 집계됐다. 역시 AI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으로 인한 출하 지연, 지난해 지속적인 가격 호조 등에 따른 입식 증가 때문으로 분석됐다.

오리는 무려 21.8%(101만9000마리)가 감소했는데, AI 발생으로 인한 대량 폐사와 이에 따른 입식 지연이 가장 큰 이유였다. 한·육우는 47만 7000마리로 전년 동기보다 2.6%(1만 3000마리)가 감소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모듈시스템' 확대

### 에어컨 실외기도 적용

### 품질 개선 50% 달성

국내 대표 생활가전을 생산하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이 에어컨 성능을 높여 품질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모듈생산 시스템을 이용, 품질과 생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14일 삼성전자 사업장에 따르면 지난해 구축한 에어컨 실외기 모듈 생산시스템 성공에 이어 올해는 실외기에도 모듈생산시스템을 구축, 에어컨 전체 공정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냈다.

모듈생산시스템(MPS·Modular Production System)은 컨베이어벨트 라인을 따라 제품을 세워서 생산하던 방식을 제품을 놓힌 채 정지상태에서 조립·검사하는 혁신적인 생산방식이다. 이에 따라 광주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2012년과 비교해 현재 인당 생산성 25% 향상 및

품질개선 50%를 달성했다. 이와 함께 라인 주요공정마다 실수방지시스템(Fool-Proof System)을 적용했다. 이 시스템은 작업 누락 및 중복작업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 바코드를 읽은 뒤 시스템 판단에 근거해 작업을 진행하고, 작업의 완성을 육안검사와 더불어 카메라를 이용한 비전검사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다.

에어컨 설치시간도 줄었다. 갑자기 에어컨을 구매하는 고객을 위해 설치 전문가를 육성하고, 일체형 배관 개발 및 작업공구를 개선, 설치효율도 32%나 끌어올렸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관계자는 "에어컨 제조현장에서 고객의 눈높이보다 더 높은 품질을 확보해 경쟁사와 확연한 격차를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이달부터 급증하고 있는 에어컨 고객 수요에 대비해 에어컨 제조현장의 야간생산도 계획하고 있다.

임동철기자 exian@kwangju.co.kr



14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에어컨 제조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모듈생산시스템에 따라 에어컨 실외기를 놓힌 채 조립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 코스피지수 1997.02(-0.42)	▲ 코스닥지수 562.04(+6.17)	▲ 금리(국고채 3년) 2.87%(+0.02)	▲ 원·달러 환율 1038.90원(+3.90)
---------------------------	--------------------------	------------------------------	------------------------------

www.guemyong.co.kr

**OPEN 30년 전통돈까스**  
SALAD & PASTA COOK

Since 1983 **유생존**

**유·스퀘어점**

**유생존 무한리필**

**돈까스**

성인..... 10,900  
초등학생..... 7,000  
소인(미취학)..... 4,000  
음료..... 무한리필  
(콜라, 사이다, 한타, 주스)

• 프리미엄 최상급 삼겹살  
• 풍부한 육즙  
• 부드럽고 아삭이러한 맛  
• 손질정기식사와 간편 허브 육성  
• 친환경 무공해 신선육재료

**즉석요리**  
얼리지않는 생돈까스  
30년의 노하우

샐러드 & 돈까스  
스파게티, 탕수육, 미트볼  
제육볶음, 치킨, 생선까스

**이웃 갈등 원인 해결!!**  
층간소음 방지 바닥재  
**오리지널 영국 제품**  
**인스타레이**

**국내최초 경량, 중량 충격음 기준통과**

**층간소음 전용 바닥재 InstaLay®**

주택시공기준	경량충격음 58dB이하 중량충격음 50dB이하
수인한도기준	주간 40dB이하 야간 35dB이하

뛰어난 열전도성, 층간 중량 충격음 방지, 다양한 바닥재 연출, 앞말은 쿠션기능으로 피로방지 및 내구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개념의 신기술 - 바닥재 시스템

**NAVER**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바닥재

강화마루, 온돌마루, 오노돌, 테코타일(석사라임), 테코타일(점사라임)

전국 시·군·구 지역 대리점 모집  
문의전화 062-575-9082

**유·스퀘어점** ☎ 062) 671-1199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구 아이엘리시아)

www.guemyong.co.kr

**이웃 갈등 원인 해결!!**  
층간소음 방지 바닥재  
**오리지널 영국 제품**  
**인스타레이**

**국내최초 경량, 중량 충격음 기준통과**

**층간소음 전용 바닥재 InstaLay®**

주택시공기준	경량충격음 58dB이하 중량충격음 50dB이하
수인한도기준	주간 40dB이하 야간 35dB이하

뛰어난 열전도성, 층간 중량 충격음 방지, 다양한 바닥재 연출, 앞말은 쿠션기능으로 피로방지 및 내구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개념의 신기술 - 바닥재 시스템

**NAVER**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바닥재

강화마루, 온돌마루, 오노돌, 테코타일(석사라임), 테코타일(점사라임)

전국 시·군·구 지역 대리점 모집  
문의전화 062-575-9082

**(주)금용건설** InstaFloor  
SGS, UKAS, SGS, UKAS